

"어머나(Gee)~, 소녀들이 돌아왔다." 9인조 여성그룹 '소녀시대'가 7일 2집 '지(Gee)'를 냈다. 1집 이후 9개월 만으로, 5곡을 담은 미니앨범이다. 첫 앨범이 11만여 장 팔리며 가요계의 블루칩이 된 그들이기에 새 앨범은 발매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발매 이튿날, 타이틀 곡 '지'는 여러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 1위에 올랐다.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SM엔터테인먼트에서 만난 소녀시대는 엇뎀 외모지만 "좋아해 줘서 고맙고,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긴장된다"(티파니)며 의젓한 모습을 보였다. "맘에 쏙 드는 5곡을 선별한, 꼭 짜인 앨범"(수영)이라는 2집. 그들에게 이번 앨범을 '꼭 들려주고 싶은 누군가'를 들려줬다.

Off the Air

돌아온 최양락 MC 데뷔 첫 녹화

긴장 탓에 불쑥 정답 발설... 구박 세례

"구박은 늘 이봉원 몫이었는데..."



최양락은 분장실에서 가장 진지하면서도 웃기는 사람이었다. 심각하게 연습하다가도 성대모사까지 곁들이며 지난 에피소드를 얘기할 땐 엉클리는 개그맨이었다. 소속사 박지아 대표(왼쪽)와 대사를 상의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아저씨가 돌아왔다. 개그맨 최양락(47)이 SBS '야심만만-예능선수촌'에서 'DJ 락의 너는 내 노래' MC를 맡았다.  
8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 SBS 공개홀. MC 최양락의 첫 녹화가 있는 날이다. 28년 경력의 노련한 개그맨이지만 '21세기의 버라이어티'는 익숙하지 않은 듯했다.  
"긴 시간 코너를 이끌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잘하는 MC들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부담스럽진 않아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대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어투와 톤을 연습했다.  
"아이고, 반갑네. 요새 뻘짓? 저번 방송(게스트로 출연한 '야심만만' 5일 방영분) 참 재밌었어." (정환식 책임프로듀서)  
"제 이름이 인터넷 검색 1위라고 하대요. 살다 살다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요. 방송 나가고 설외 전화가 100통이 넘었어요. 안 불러 줄 때는 언제고.(웃음)" (최양락)  
녹화 시작 직전, 화려한 스튜디오 뒤편 어둡컴컴한 곳을 그는 서성이고

있었다. 카메라 11대에 일제히 불이 켜졌다. 스태프 40여 명이 숨을 죽였다. 박수 속에 그가 등장했다.  
대본은 '빠대' 정도만 주어진다. 나머지는 출연자가 즉흥적으로 하거나 작가가 대화의 흐름에 따라 질문과 진행 방식을 '코치'한다. 메신저는 8월 스케치북과 매직.  
녹화가 1시간쯤 지났을 때, 그는 정답을 불쑥 발설해 버렸다. 그에게 '구박'이 집중되면서 활기가 살아났다.  
그래도 순발력과 말솜씨는 여전하다. 2시간가량 이어진 녹화가 끝났다. 첫 소감. "구박받는 역할은 늘 이봉원 몫이었는데..."  
뒤돌아서 나오는데 그의 소속사 대표가 불렀다. "아까 최양락 씨 얘기 중에 어린 시절 부분, 기사에 쓰실 거예요? 다음 토크 때 쓰려고요."  
최양락의 예능 생존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어머나, 우리노래에 날개 달렸나봐!

(Gee~)

미니앨범 '지(Gee)' 낸 소녀시대... "OOO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 **유리, '고단한 직장생활에 지친 오빠, 언니들에게'**  
"지"는 밝고 경쾌한 곡이에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힘든 분이 많잖아요. 직장 다니는 분들도 스트레스가 많을 거고. 그런 이들에게 원기회복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 **써니, '곧 엄마가 되는 큰언니에게'**  
곧 제가 이모가 돼요. 15세 위인 큰언니가 출산을 하거든요. 언니는 여전히 소녀 같아요. 모든 여성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할머니, 아줌마로 불리지만 영혼은 언제나 소녀죠. '지'를 듣는 순간만큼은 모두 함께 소녀이고 싶네요.
- **제시카, '유학 중 외로워하는 친구에게'**  
친구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와 떨어져서인지 많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해요. 앨범 두 번째 곡 '힘내!'에 "힘을 내, 이만큼 왔잖아. 이것쯤은 별것 아니냐"란 대목이 있어요. 이 노래를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 **윤아, '함께 신입생이 될 대학 동기들에게'**  
올해 대학생(동국대 연극영화학과)이 되는데, 벅차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 입학할 앞둔 동기들도 같은 마음이었죠? 2집에 사랑을 시작하는 마음을 담은 곡이 많은데 비슷한 느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 **서현, '두근거림을 다시 찾은 노부부에게'**  
세월이 쌓인 부부는 정으로 산다고 해요. 하지만 예전의 두근거림과 설렘을 찾고 싶을 거라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소중한 걸 잃지 않는 노부부처럼 근사한 이들도 많잖아요. 그분들의 배경을

악이 우리 노래가 되면 좋겠어요.  
● **효연, '해외가수 크리스 브라운과 비온세에게'**  
그냥 딱,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가장 좋아하는 가수여서 그런가. 알아듣진 못해도 "한국에 꽤 귀여운 가수들이 있구나" 해주면 기쁠 겁니다. 그들이 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화제를 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너무 욕심 부렸나, 해해.  
● **수영, '언제나 믿고 지켜봐 주는 엄마에게'**  
앨범 세 번째 곡 '디어 맘'을 녹음하며 멤버들이 모두 많이 울었어요.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무 말 없이 뒤에서 지켜봐 주셨죠"란 가사가 생각나네요. 엄마 사랑해요.  
● **태연,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이들에게'**  
이번 앨범을 준비하며 멤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던 기억이 나네요. 새해를 맞아 무언가를 새로 준비하는 분이 많을 텐데, 저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란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 **티파니, '그냥... 모두가 함께 듣고 싶어요'**  
노래는 발매된 순간부터 듣는 분들의 노래예요. 같은 음악도 생각과 처지에 따라 달리 들릴 거고요. 우리 9명이 모여 하나의 화음을 만들듯, 마음에 사랑을 담은 모든 이가 함께 들으면 좋겠네요. 우리의 음악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바비 김포 발라드 기대하세요"

스페셜 앨범 '러브 챗터 원' 선보여



바비 김(사진)의 목소리는 묘하다. 흘러들어도 잊히질 않는다. 드라마 '하얀 거탑' '타짜' 등의 배경음악이나 '사표를 날려라'는 가사가 인상적인 광고음악이 인기를 끈 것도 그런 연유다. 애절한 듯 흥겹고, 여유로운 듯 꼭 차오른다.  
12일 낸 스페셜 앨범 '러브 챗터 원'은 그런 목소리의 진가를 오롯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 본인 앨범은 물론 리쌍, T유미래 등에게 곡을 준 '싱어송라이터'지만 이번 앨범은 대부분의 곡을 다른 작곡가에게 받아

싱어의 역량을 뽐냈다. 발라드도 바비 김이 부르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걸 보여 주리라도 하듯.  
생일이기도 한 당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동아미디어센터에서 만난 그는 이번 앨범을 '선물'이라고 불렀다.  
"스스로나 팬들에게 선물의 의미가 큼니다. 발라드는 한번 해보고 싶은 분야였어요. 음악적으로 '감성을 묻을 여유', 공간이 있는 장르거든요. 이전 앨범에서도 느린 템포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정규앨범 사이에 여는 '서프라이즈 파티' 같은 거죠."  
하지만 남의 노래를 부른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작곡가들은 편하게 부르라고 했지만 다른 이의 '솔(soul)'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쉽지 않았다"면서 "스스로 납득할 때까지 여러 번 녹음을

다시 했다"고 말했다.  
예감이 가는 곡은 '마마(mama)'와 '사랑...그놈'. 각각 조관우의 '눈'을 쓴 작곡가 하광훈과 '소중한 너'를 부른 가수 박선주가 작곡했다.  
"선주 누나와 작업은 많이 했지만 곡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가사가 직설적이면서도 폐부를 찌르죠. '마마'는 다른 말이 필요 없습디다.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누구나 같잖아요. 세상의 모든 어머니에게 바치는 곡이에요."  
올해 가을쯤엔 바비 김의 솔로 3집 앨범도 나올 예정이다. 그는 "발라드를 불렀다고 바비 김 본인의 색깔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오히려 색다른 경험을 하며 많이 배워가는 중인 만큼 더욱 풍성하게 완성도 높은 앨범을 들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양환 기자 ray@donga.com



'소녀시대' 멤버들. 왼쪽부터 태연 티파니 수영 제시카 유리 윤아 써니 효연 서현. 사진 제공 SM엔터테인먼트

(주)참다운녹즙  
www.charmdaun.net

특허청발명특허 FDA 미국식약청등록 18392387496  
약상물질의 과립 제조장치 KFDA 한국식약청허가 제2006-가-0019호

당신의 혈당 걱정 되시죠?

옥수수에서 추출한 식후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식이섬유와 어린 보리순 건조녹즙을  
혼합한 모두에게 안전한 식품 녹심 당스탑!

식후 혈당상승 억제는 기본  
배변활동 원활까지...

안전한 식품 녹심 당(糖)스탑

믿고 드실 수 있는 안전한 식품-녹심 당(糖)스탑  
안전한 식품 녹심 당스탑은 식후 혈당상승 억제는 물론 배변활동까지 원활하게 해 주는 참다운녹즙의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 배변활동 원활하게 해 줍니다.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고 변의 양을 늘려 주어 배변활동을 도와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배변활동 원활에 좋습니다.

녹심당스탑 12박스(6개월분)  
구성 : 45포×12박스  
어린보리순즙분말,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과립(식이섬유)

반값 체험이벤트

당스탑 2세트 12박스  
468,000원 → 234,000원

· 맛이 개운하고 부드럽습니다.  
· 개별 스틱포장하여 휴대하기도 편리합니다.

※ 불만족시 잔여상품에 대하여 즉시 환불 해 드립니다.

KBS  
MBC  
SBS  
TV광고중

(주)참다운녹즙 홈페이지에 오시면 「반값 체험이벤트」를 진행중에 있으며 녹심당스탑을 섭취하신 고객님의 「생생한 체험후기」를 꼭 확인 하세요.

인터넷 주소창에 참다운녹즙 을 쳐보세요

· 무통장 입금계좌 우리은행 : 1005-701-273454 예금주 : (주)참다운 녹즙

· 주문전화 02)2679-1344~6